

'마을 만들기 사업' 활력 불어넣어

장수군·장수지역활력센터, 단계별 추진 주민 지역 역량 강화·정주여건 등 개선

장수군이 장수지역활력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장수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향의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해 농촌 자립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크게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기초생활기반확충으로 구성돼 있으며, 0단계부터 시작해 1단계, 2단계, 3~4단계까지 단계별로 추진된다.

0단계는 마을자원조사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향후 마을 사업을 위한 기초 마을 자원 조사를 실시한다.

1단계 예비장수마을 시기에는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농촌현장포럼과 생생마을조성 사업이 이뤄진다. 마을사업교육, 현장포럼, 선진지 견학, 생생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마중물 사업이 추진된다.

총 사업비 3000만 원이 투입되는 2단계 장수마을사업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진입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각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3~4단계 일반농산어촌개발 단계에 진입하면 총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며,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중·대규모의 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2018년 산서면 사창마을, 대덕마을, 신월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장수군이 장수지역활력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장수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한뼘문화회관, 노인공동생활공동체, 마을 역사박물관,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했으며, 마을리더 교육, 문화축제 등을 열어 주민들의 지역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2019년도에는 산서면, 계북면, 계남면, 장수읍의 마을들로 대상을 확대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군은 이 사업으로 주민사랑방, 초록담장길 조성, 산책로 안전시설 설치, 마을 입구 꽃길 조성 등을 완료해 마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은 2018년, 2019년 농림식품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진행했으며, 2020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있

다.

지난해 10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마을은 6개다. 군은 올해 신규 마을 4개소를 선정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후식 장수군수는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지금, 지속가능한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장수군민이 먼저 살기 좋은 장수, 삶의 질 높은 장수가 만들어지면 장수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화합하고,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사회적농업 '특별한 프리마켓'

무주군, 발달장애 청소년 직접 재배 생산 농·특산물 판매

무주군내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정성껏 만든 음식 솜씨에 지역주민은 큰 찬사를 보냈다. 사회적농장으로 선정돼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농업을 실천해온 반햇소 영농조합이

지난 5일 특별한 프리마켓을 큰 호응 속에 진행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프리마켓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사회적농업을 통해 직접 재배하고 생산한 농·특산물 등을 판매하는



자리다. 프리마켓의 판매품은 감자를 비롯한 딱깃비 땅기짚 등으로 판매 수익금은 사회적농업에 참여할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된다.

이날 반햇소 영농조합(대표 전병술)이 주관한 사회적농업 생산품 판매 행사인 특별한 프리마켓에서는 사회적농업 농가를 비롯한 사회단체,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프리마켓에 참여한 주민들은 "신선한 제품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고, 발달장애 청소년을 응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직접 따 흘려 버린 제품이라 더 의미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병술 대표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사회적농업 프리마켓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 같다"며 "더운 날씨에도 망설임 없이 달려오신 주민들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하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

무주군, 민간부문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무주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부문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52대(승용 43대, 화물 9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에 맺은 후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을 유의해야 하며, 취약계층과 다자녀세대 또는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에 대해선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

보조금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200만 원을 지원하며 2년 동안 차량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지난해 13억9천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 전기자동차 75대를 보급했으며, 지속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추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게시판 공고 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을 참고하거나 무주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박영석팀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덜게 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9대 무주군의회, 유관기관 방문 현안사항 청취

제9대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지난 6일 농협중앙회무주군지부 등 9개소의 유관기관·단체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방문은 제9대 무주군의회 의원 구성을 알리고 기관별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방문일정은 농협중앙회무주군지부를

시작으로 △무주종합복지관, △무주군기차실, △무주교육지원청, △대안노인회, △무주양수발전소, △무주군체육회, △무주문화원, △관광협의회 순으로 방문했다.

이해양 의장은 "의회와 기관·사회단체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중의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각 기관·단체장들에게 무주군의회 의정에 대한 지속 관심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업·농촌 담당부서 합동 워크숍 가져

진안군은 7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군의 주 소득원인 농업·농촌 부문의 전반적인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농업·농촌 담당부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앞서 6일 열린 농업농촌 혁신전략 간담회의 연장선상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혁신적 정책을 통한 농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 인구 감소 등으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군 농업정책의 핵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등 직원 50여명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워크숍에서는 진안농협 현황 공유, 각 분야별 정책사업 발전방안 토론, 각종 지도·지원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특히 진안의 자연·농업 환경과의 적합성, 확장성, 시장성 등을 고려한 소득작목 발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며 농업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고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진안 농업의 각종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며 "워크숍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농업현장과 결합해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지역 소식 통

황인홍 무주군수 '청소년 목소리 담아 군정 반영'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6일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위원들을 위촉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군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무주청소년수련관 체험활동실에서 열린 위촉식 및 간담회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청소년참여위원회 12여명과 청소년수련시설 관계 청소년지도사 1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 보고를 통해 청소년 참여권 확대 운동의 일환으로 운영된 청소년 모의투표 사업 등 상반기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청소년 키움센터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의 하반기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군은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며,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교육지원청 및 관련기관 등과 협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활동 전개

진안군은 가축분뇨 무단방류와 폐기물 투기 및 악취 발생사업장 등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군은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 호우를 틈타 축산 농가를 비롯해 공장, 사업장 등에서 악취발생을 야기하는 오폐수 불법 방류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특별 감시반을 운영한다.

특별 감시반은 3개조 6명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공공기관 운영 시간 외 심야 및 휴일 시간에 집중 감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잡아낸다. 계획이다.

특히 해당 사업장에 사전에 감시 활동을 안내해 기계설비의 오작동이나 고장 방지 등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되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환경오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진안군은 전년도에는 13개소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1개소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12개 사업장에는 47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진안=우태만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